

中國著者記號編製法 (上)

汪學文 編著
朴熙永 譯

自序

圖書館에서 圖書를 分類 編目할 때 같은 類의 圖書를 區別하기 爲하여서는 그 內容에 따라서 分類記號를 주는 以外에 著者の 姓氏에 依하여 著者記號를 줌으로써 書架에 排列할 때에 各 圖書를 一定한 位置에 있게 하는데 便利하게 한다. 이 著者記號는 같은 類의 것을 分別한 後 相違한 著者の 圖書를 分別하는데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一般圖書館에서 採用하고 있는 著者記號에는 二種이 있다. 하나는 杜定友氏의 著者記號表이고 또 하나는 王雲五氏의 四角記號이다. 前者의 것은 檢索할 때에는 姓氏의 筆劃의 數를 반드시 세어야 되므로 時間을 消費하게 되고 틀리기 쉽고 또 列擧된 姓氏의 數가 制限되어 있다. 後者의 것은 繁雜한 規則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記號가 있어 混沌하는 弊端이 있다. 그러므로 兩者는 모두 理論上에 있어서 더욱 研究할 點이 있고 應用面에 있어서도 역시 問題가 있는 것이다. 編者는 數年間 圖書의 分類와 編目事務에 從事하였는데 著者記號를 使用하면서 弊端을 實際 經驗하여 왔기 때문에 나는 따로 보다 實用的인 著者記號를 이에 試圖하였다.

本書는 理論과 實際를 兼備하도록 考慮하여 著者記號의 編製原則과 方法을 述하는 以外에 特別히 詳細한 著者記號表를 덧붙여 列擧함으로써 應用에 資하고자 하였다. 著者記號表의 編製에 있어서 가장 먼저 解決해야 할 두 가지 課題가 있다.

하나는 內容이다——우리 나라의 姓氏는 普通 4千이 있다고 한다. 確實한 數字는 알 수 없고 資料의 蒐集 역시 容易하지 못하다. 姓氏를 記錄한 圖書가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모두 흔히 볼 수 없으며 現在 流傳되는 百家姓에는 收錄된 姓氏가 十分之一에 不過하며 杜氏의 著者記號表에 列擧된 姓도 또한 이 數에 미치지 못하며 實地 使用하는데 不適當하다. 또 四角記號를 使用하게 되면 表로서 配列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때 記號를 만들어 使用하는 便利가 있으나 四角記號는 一

記號의 原則에는 어그러지는 點이 있는 것이 遺憾인 것이다. 그러므로 混沌하는 弊端이 생기는 것이다. 編者는 이에 對하여 恒常 注意하고 있었지만 數年來 모은 것이 千姓에 不過하였다. 多幸히도 앞서 張世堯氏가 編한 四千家姓註解라는 圖書를 빌릴 수 있었는데 그 圖書에 收錄된 姓氏가 都合 4,059에 達하고 있어 本書의 著者記號表를 排列하는데 이것으로 補充하게 되었는데 一般圖書館에서도 充分히 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 應用的 簡便을 企圖하여 따로 하나의 常用 姓氏表를 덧붙여 排列하였고 그 記號는 正表에서 編한 것을 採擇하여 詳細한 것과 簡略한 것의 2種을 準備하여 任意로 擇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應用에 便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方法이다——著者記號의 編製는 반드시 檢字方法을 使用해야 한다. 漢字의 檢字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筆順으로 排列하여 檢字토록 하는 것이 比較的 合理的이다. 大體로 筆順은 漢字의 形體와 構造가 關係되는데 우리 나라 사람이 文字를 익히기 始作할 때부터 教師는 이 法을 가르쳐서 날이 갈수록 스스로 習慣이 되어 다른 方法을 記憶할 必要가 없고 배움을 받는 者는 그 理致를 쉽게 깨우치고 檢字하는 者는 또한 쉽게 그 方法을 摠得할 수 있다. 그리고 五筆檢字法은 그 分類가 비록 簡單하다고는 하지만 楷書筆形이 가진 것을 모두 網羅하여 있어서 筆順中에서도 比較的 좋은 것의 一種이다. 그러므로 編者는 特別히 그 法을 採擇하여 編製하였다. 筆順의 主要問題는 起筆寫法中에 같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特別히 두 가지를 採擇하여 排列하고 相互 参照토록하여 檢索에 便利하도록 하였다.

淺學한 編者가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本書에서 拙見을 提供하는 바이다. 잘 못 되고 빠지고 모자라는 點이 많을 것이니 專門學者 여러 분들의 가르침과 고쳐 주심이 있으면 이보다 多幸함이 없겠다.

本 編者는 倪寶坤先生의 指導와 激勵을 많이 받아 앞서 著述한 圖書分類方法이란 圖書도 推薦을 받았고

이제 또 序文을 받아 感銘한 바 이를 데 없고 이에 敬意와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中華民國四十五年 六月 三日

汪學文序 於臺北

一. 著者記號의 意義

圖書館에 있어서 圖書의 整理作業中, 重要한 技術은 무엇보다도 分類라고 하겠다.

圖書의 分類는, 各種 圖書中에서 그 性質을 分辨하여 다른 것을 나누고 같은 것을 가르는 것이니, 卽 荀子가 말한 所謂「同其所同, 異其所異」가 이것이다.

分類 原理에 依하면, 同類의 圖書가 들어 가는 類目(※分類表의 類目을 말함)이 반드시 같아지므로, 圖書의 排檢에 있어 分類記號가 같아짐으로 반드시 또 다른 記號를 붙여서 이를 區別한다. 普通 同類 圖書의 排列은 著者를 基準으로 하는 方法에 依하는데, 이 著者의 姓氏의 符號를, 卽 著者記號라고 말한다.

著者記號의 効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同類의 圖書들을, 順序를 定해 주어 排檢에 便利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同類 同著者의 圖書를 한 곳에 모아서 研究에 便利하도록 하는 것이다.

著者記號의 編製는, 英文에 있어서는 美國의 커터氏(Cutter, C.A.)의 著者記號表가 가장 잘 되어서 널리 使用되고 있는데, 그 方法은 西洋人의 姓氏를 Alphabet順에 依하여 排列하고, 거기에 記號를 붙인 것으로, 예를 들면 Henry라는 姓은 H521이라고 된다. 그러나 中國文에 있어서는, 漢字의 排檢方法이 많을 뿐더러 研究한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適用할만한 것이 아직도 적다. 確實히 中國文 著者記號表의 編製는 까다롭고 매우 繁雜하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 編하면 圖書의 管理와 檢査에 있어서 極히 便利하다는 것은 實際 이 일에 從事하는 사람은 同感할 것이다.

二. 著者記號編製原則

1) 一姓은 一番號로 하고 順序를 固定케 한다——同類의 圖書는 著者를 基準으로 하는 以上, 著者記號를 表로 作成하여 順序를 固定케 하고 一姓은 一番號를 주는 것을 原則으로 해서, 한 사람의 學說을 한 곳에 모아 管理와 參考에 便利케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記號가 混合되고, 오래 使用하고 있으면 混亂이 생겨서 分別이 되지 않아 判別하기가 容易하지 못하고, 圖書의 排列과 檢査에 있어서 困難을 當하게 된다.

2) 特殊著者를 區別할 수 있어야 한다——機關 또는 團體와 같은 特殊著者는 그 記號가 一般著者의 姓氏와는 區別하여 識別할 수 있게 하여 一般 個人 姓氏의 記號와 同一 數系 領域內라 할지라도 混列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制度는 單純해야 하고 檢査에 便利해야 한다——著者記號의 編製의 目的은 檢査하는데 있는데, 分類하는 사람이 每冊의 圖書를 分類할 때마다 著者記號를 한 번씩 찾아 보게 되므로, 編製方法과 制度上에 있어서 簡便하고 單純하도록 힘써서, 使用하는데 便利하도록 해야 한다.

三. 著者記號編製方法

著者姓氏의 表의 排列과 番號의 編成은 檢字方法을 使用하게 되므로 먼저 檢字에 對하여 說明하겠다.

英文의 檢字는 다만 alphabet 順序만을 記憶하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나, 漢字는 그렇지 않아서 母筆은 一定한 順序가 없을 뿐더러, 筆形의 併合도 또한 一律的으로 左로부터 右로 가는 것이 아니어서 그 排檢方法에 對하여 研究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各各 意見이 달라서 統一할 수는 없지만, 比較的 常用되고 있는 것은 部首法과 四角記號라고 하겠다.

部首法과 四角記號로서의 檢字의 應用과 速度에 對하여서는 臺灣省立臺北女子師範學校附屬小學輔導研究部에서 學生들이 使用하는 字典의 指導와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여 中華民國四十二年(1953) 가을, 客觀的 標準과 科學的方法으로서 比較 實驗하여, 一個學年을 거쳐 얻은 그 結論은 다음과 같다.

『<一> 部首檢字法은 배우기 쉬우나 찾기 어렵다.

甲. 國字의 構造는 偏·旁·底·冠의 各部로 組織되어 있는데 이 偏·旁·底·冠은 모두 部首이어서 使用하는 사람에게 쉽게 理解되므로 部首의 檢字는 익히기 쉽고 理解하기 쉽다.

乙. 檢字할 때 밝아야 할 節次가 繁雜하다.

1. 먼저 部首를 밝혀야 한다.
2. 部首의 筆劃을 計算한다.
3. 檢字表에서 찾아야 한다.
4. 部首의 面數를 뒤져야 한다.

5. 部首를 찾은 다음 또 다시 部首 以外의 部分의 面數를 計算한다.

6. 그 다음에야 筆劃의 順序에 따라서 하나 하나 제거하며 所要되는 字를 찾는다.

節次가 繁雜한 만큼, 自然히 檢字의 速度에도 影響이 있다. (註: 問題는 그 方法이 單純하지 않는데 있다——筆劃을 셈하는 일과 部首 그 自體와는 根本的으로 關係가 없으므로, 部首의 劃數를 除外하기 때문에 時間이 걸리고 또 錯覺하기 쉽다)

<二> 四角記號檢字法은 배우기 어렵고 찾기 쉽다.

甲. 四角記號檢字原則은 複雜해서 各種 筆形에 代

身하는 記號를 暗記해야 하는데, 記號와 筆形은 根本的으로 相關이 없고, 더욱이 取角取筆의 法則을 熟習해야 하므로, 배우기 시작하는 兒童들은 매우 困難을 일으키게 된다. 本實驗의 第一段階인 四角記號檢字速度가 部首의 檢字速度보다 못한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乙. 一個學年の 訓練을 거친 後, 記號와 筆形과의 關係를 잘 알고 取角取筆도 또한 熟知하고 나서 다시 檢字할 때 한번 뒤지면 쉽게 찾을 수 있어 許多한 手續의 번거러움을 거칠 必要가 없으므로, 部首檢字보다 훨씬 優秀한 것이다.

<三> 四角記號의 檢字를 應用하면 그 檢字의 速度는 確實히 部首檢字보다 優秀하다.

<四> 우리들은 兒童들이 四角記號檢字로 되어 있는 字典을 使用하는 것을 獎勵하는 나머지, 兒童들의 部首에 對한 認識을 放置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部首에 對한 認識은 國字에 對한 認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參考: 該校輔導研究部編印 四角號碼與部首字法對於檢字速度之比較實驗報告)

上述한 두 가지 方法 以外에 또 筆順法(起筆이라고도 함)이 있는데, 漢字의 母筆에는 一定한 順序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筆順에는 그 規則이 있는 것으로서 例를 들면 上으로부터 下로(高字와 같이) 左로부터 右로(好字와 같이) 外로부터 內로(圖字와 같이) 먼저는 떨어지고 후에는 엇갈리고(于字와 같이) 가운데를 먼저 하고 후에 旁을(樂字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法들은 母筆의 分類에 있어서 많은 差가 있다.

1) 永字八法 이 法은 「永」字를 筆形으로 나누어서 ·(點), 一(橫), | (直), 丿(直鈎), ㇇(上斜橫), ㇏(撇), ㇐(短撇), ㇑(捺)等 八種으로 되는데 順序로 排列하고 後에 이를 또 合하여 ·(點), 一(橫), | (直), ㇏(撇), ㇑(捺) 五種으로 하였는데, 이 法에 對하여는 中國圖書館學會分類編目委員會에서 「國立北平圖書館中文目錄檢字表」를 再版했을 때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

「漢字의 排檢法은 여러 사람들이 研究를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 完全하고 簡易한 方法을 얻지 못하였다. 前 國立北平圖書館에서 編印한 「中文目錄檢字表」는 『永』字八法의 原則에 依據하여 排列 編成하였는데, 中國人들은 文字를 익히기 始作할 때 教師가 起筆의 先後와 筆劃의 多寡를 가지고 가르쳐서 오랫동안 習慣이 되면 다른 方法은 不必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檢字表는 實로 오늘날 流行하고 있는 漢字排檢法中에서 가장 便易한 것이다.」

그러나 起筆에 對하여 말하자면 그 基本筆形中의 ㇑(捺)은 公연히 만들어져 있는 것이어서, 大體로 漢字楷書의 起筆에는 ㇏과 ㇑이 없어, 이 檢字表에 列擧한 것中에 있는 四種의 筆形만이 起筆로 使用되는 것이다.

以外에 朱威明氏는 또한 아래와 같이 批評하였다.

「唐의 張懷瓘(一說에는 晉의 王羲之)가 永字八法을 創案하여 楷書를 배우는 基本으로 하였는데, 第擧永字를 例로 하여 楷書의 全筆劃을 網羅하기에는 不足하여 이것을 使用하는 사람은 窮할 때가 있으므로, 完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參考: 陳立夫氏 編著 五筆檢字法之原理效用) 要컨데, 이 法은 書法과 用筆에 對하여 말한 것으로서, 勿論 거기에는 理致가 있으나 그러나 檢字로서 使用하기에는 理想的인 것이 못 된다.

2) 四筆檢字法 이 法은 筆形을 ·(點), 一(橫), | (直), ㇏(撇)의 四種으로 나눈 것으로 決코 上記의 法과 別로 다른 것이 없어서 朱威明이 말하기를 「不可謂之盡善也」라고 하였다. 이 法을 應用한 것이 있는데

甲. 蔡巧因氏가 主編한 啓明書局出版啓明辭林에는 文字의 第一筆을 ·(點), | (直), ㇏(撇), 一(橫)等 四部로 나누고, 다음에는 第二筆을 그 原理에 依하여 4種의 目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筆劃에 依하여 排列하고, 두 筆을 連寫할 때에는 먼저 筆(붓)이 떨어져 닿는 그것을 먼저로 하였다.

乙. 趙震氏가 編著한 學生書局出版 新青年起筆字典은, 「起筆字典」이라는 擘字의 起筆(即 一ノ、|)을 四大部首로 해서 文字의 劃數를 目으로 하여 順序로 排列하고, 두 筆을 連寫하는 것은 먼저 붓이 떨어져 닿는 그것을 먼저로 하는 것을 爲主로 하였다.

3) 自然排檢法 丁德先氏가 編한 新新字典(北辰出版社, 民國四十五年 初版)이 이 法을 採用하였다. 이 法은 單筆을 十類로 나누었다.

이에 對한 簡單한 評은 다음과 같다.

次 序	名 稱	本 筆
0	點	·
1	橫	一
2	豎	
3	撇	㇏
4	捺	㇑
5	轉	㇏
6	屈	㇏
7	翰	㇏
8	乙	㇏
9	思	㇏

甲. 丶 一 | ノ의 四種의 基本單筆은 四筆檢字法의 分類과 大略 같지만, 每類마다 「別筆」이란 것이 붙어 있어서(丁氏가 本筆外의 筆形을 붙였다) 複雜해서 찾기 어렵다.

乙. 漢字의 正楷에는 丶으로서 起筆하는 것이 없으니, 丶를 十大本筆의 하나로 한 것은 無理한 것이고 이 類에 包含된 十五字 「入」, 「Y」, 「全」, 「斜」 등이 이것이다)는 合當하지 않다.

丙. 이 法에 있어서 連筆과 彎曲의 筆形을 合하여 ㄱ ㄴ ㄷ ㄹ 五類로 나누어 있어 形式上의 類別이 많으나, 實際上에 있어서는 그 全部를 網羅하지 못하고 있어서, 分類하는데 妥當성이 缺하여 있으므로 말미암아 檢査時에 大端한 不便을 느낀다.

要컨대 新新字典에 收錄한 新字는 大端히 많고, (臺灣에서 使用하고 있는 特有文字도 包含), 正楷의 新活字를 鑄字하여 印刷해 있어 보기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排檢法에 있어서는 역시 理想的인 것이 못 된다.

4) 五筆檢字法 陳立夫氏가 編著한 中華書局出版의 五筆檢字學生字典에 있어서는 每字의 第一筆, 第二筆, 第三筆 等의 筆劃의 形狀을 各各 (點), 一(橫), | (直), ノ(斜), ㇇(屈)의 五類로 나누어서 이 順序로 排列하였고, 連筆에 있어서는 ㇇(屈)類를 만들어 거기에 넣었는데, 이 ㇇(屈)類의 創設은 實로 主要한 特徵인 것으로서, 應用上 大端히 便利하다. 朱信이 말하기를 「筆順法은 陳立夫의 『五筆檢字法』이 가장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參考: 四十五年一月二十四日 中央日報)

著者記號編製의 方法은 檢字法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 簡單히 數種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文華大學圖書館 著者記號

이 法은 著者의 姓氏의 筆劃과 그 部首를 合하여 만든 것으로서, 例를 들면 趙字는 14畫이고, 走部에 屬하므로 그 記號는 14走가 되는데, 이 法은 數字와 文字를 並用하는 것으로 部首의 種類가 많고, 記錄과 檢査에 不便하여서 使用하는 者가 極히 적다. 또 이 以外에 이 法과 비슷한 法이 한 種類 있는데, 그것은 著者의 姓氏의 旁을 記號로 보고, 거기에 番號를 붙여서 記號로 한 것으로 12·13·14·15 等이라고 된다.

(參考: 俞爽迷氏編 圖書館學通論)

2. 四角記號

四角記號를 가지고 著者記號를 만드는 方法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王雲五氏의 中外著者統一排列法이다. (參考: 王雲五著 中外圖書統一分類法)——西洋文에 있어 十個의 記號로서 二十六個의 英文字母(alphabet)를 代身하

였다.

0—A, O, H
1—B, P
2—C, K
3—D, T
4—E, I, J, Y
5—F, V, U, W
6—G, Q
7—L, R
8—M, N
9—S, X, Z

姓에 依하여 數字의 4位까지를 取하였는데, 例를 들면 Henry는 0487이 되고, 中國文도 역시 4位까지의 數字를 取하였는데, 姓을 2位까지(左上角과 右上角)를 取하고, 名의 두 字는 各字에서 1位式(左上角)을 取하여 中國外國의 著者記號가 나오면 다시 混合排列하는 것이다. 이 法은 아래에 列學한 缺點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英文 26個 字母를 不過 10個記號로서 代身했기 때문에 비록 姓氏의 字母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記號는 같을 可能이 많다.

<2> 이 法으로서 中國外國의 姓氏를 合하여 取扱하기 때문에 中國外國의 姓氏 記號가 같아져서 混沌하여 正確치 못하다.

<3> 著者記號는 姓을 爲主로 하게 되어 있어, 名을 二次의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普通 姓氏記號라고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所謂 四角記號라고 하면 每字의 四角의 筆形을 取하여, 이것을 記號로 하는 것인데, 이 法은 姓과 名의 各 두 番號를 나누어 取하여 이것으로 著者의 姓氏를 말하게 된다. 그래서 四角에 未及하고 完全性을 缺한 것 같으나, 四角記號라고 말하고 있는데, 不過 文字의 2角 또는 1角을 取하므로 四角記號의 原義에 反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方法은 姓氏를 四角記號表로 編成 排列한 것인데, 이 法은 編者 曾가 中國工程人名錄(資源委員會編, 商務印書館出版) 안에 「四角記號姓氏表」를 研究하여 붙여 있는데 아래와 같은 問題가 發見되었다.

甲. 같은 番號가 몹시 많아서 萬一 圖書 著者 姓氏의 符號로 이를 使用한다면 排列이 甚히 困難하다. 이 表에 467姓이 있는데, 그 中에서

6姓이 同番號가 1組—例: 廖, 齊, 方, 高, 席, 商等
6姓이 같은 0022

5姓이 同番號가 2組—例: 卞, 應, 康, 庾, 蔭等 5姓
이 같은 0023
茅, 芮, 蕭, 蘭, 關等 5姓
이 같은 4422

4姓이 同番號가 6組—例: 干, 要, 覃, 平 4姓이 같은
1040

石, 吾, 晉, 雷 4姓이 같은 1060

苑, 花, 莊, 薩 4姓이 같은 4421

3姓이 同番號가 19組一例: 文, 辛, 章 3姓이 같은 0040

史, 申, 車 3姓이 같은 5000

門, 關, 閻 3姓이 같은 7777

全, 全, 金 3姓이 같은 8010

2姓이 同番號가 57組一例: 何, 衛 2姓이 같은 2122

江, 汪 2姓이 같은 3111

古, 吉 2姓이 같은 4060

劉, 丘 2姓이 같은 7210

余, 余 2姓이 같은 8090

組別로서 말한다면, 數字가 같은 것이 合計 85組로서 總姓氏의 100分의 18.6이 되고, 姓別로서 말한다면 같은 記號의 姓氏가 合計 211個로서 總姓氏의 100分의 45.2가 된다.

같은 것에는 일일이 角의 記號를 덧붙이므로 繁雜하다. 乙. 複姓은 두 개를 모두 記號로 따는데 萬一 圖書의 著者의 姓氏로 이 符號를 使用한다면 大端히 길뿐더러 이것을 記錄하기에는 極히 不便하다. 例를 들면 <1> 諸葛은 0466 (4472)

<2> 司徒는 1672 (2428)

中國에는 複姓이 大端히 많고, 그리고 複姓中에는 앞의 한 字가 같은 것이 또한 적지 않은데 司馬, 司徒, 司冠, 司空, 公羊, 公良, 公都, 公儀…… 등이 있어 이것을 輕視할 수 없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丙. 特殊著者記號는 區別하는 法이 없다. 上述한 中外著者統一排列法의 弊端이 여기에도 있다. 要컨데, 王雲五氏의 四角記號는, 學術上에 있어서는 價値 있는 發明에 屬한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著者記號의 使用으로는 慎重한 考慮와 研究의 必要性이 있는 것 같다.

3. 杜定友氏 著者記號表

그 排列順序는 筆畫를 主로 하였고, 起筆을 副로 하였다 (參考: 杜定友編 著者記號編製法) 例를 들면

劃數	起筆	姓氏	記號
2	一	丁	2
		刁	5
		卜	7
3	丨	千	8
	一	子	9

筆畫法의 缺點은 어떤 것은 連하여 1筆로 하고 어떤 것은 나누어 2筆로 하는데, 一定한 規則이 없으므로, 計算하는데 不便하다. 起筆을 가지고 말하면, 各種의 筆形의 使用에 對하여 周到하지 못하고 단지 一丨ノ 4種 뿐으로서 그 中 連筆의 筆法은 間或 ㄣ形 一種을 덧붙여서 使用한다 하더라도 大體로 起筆의 第1部分의 筆法으로서 計算한다. 例를 들면 刁字는 一部에 들어가고, 水字는 丨部에 들어가고, 台字는 丿部에 들어가는데, 이 以外에도 그 使用規則이 複雜하고 또한 不合理하다.

甲. 基本的인 番號가 固定해서 編하여 있지 않아서, 同一한 姓氏가 往往 여러 個의 記號를 가지게 된다. 例를 들면 王이란 姓이 그 表中에 21-28로 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8個의 記號를 가지게 된다.

乙. 使用方法이 單純하지 않아서 筆劃에 따라 記號를 附加하는 것이 있고, 筆法에 따라 記號를 附加하는 것이 있어 實로 複雜하고 記憶하기 어려워서 그 應用에 時間을 虛費하고 錯覺하기 쉽다.

4. 何日章氏 著者記號表

何氏의 表의 排列方法은 筆劃을 主로 하였고, 筆法을 副로 하였는데, 같지 않은 것을 이 表에서는 姓氏를 左右 兩 쪽으로 나누어 列을 지게 하고, 中間에는 番號를 順序에 依하여 兩姓을 같은 1記號式으로 되어 있다. (參考: 何日章編 中國圖書十進分類法), 例를 들면

筆畫	筆法	姓氏	記號	姓氏	筆法	筆畫
一畫	一	一	001	乙	一	一畫
二畫	一一	二	002	卜	丨、	二畫
三畫	一一	子	011	上	丨一	三畫
四畫	一一	王	033	公	ノ、	四畫

이 法은 Cutter氏의 著者記號를 模倣한 것이나, 그러나 Cutter氏의 表에는 英文字母가 記號 앞에 있고, 兩姓이 同記號라도 弊가 없으나, 何氏의 表의 記號는 같은 것이 2分의 1에 達하며 同類의 圖書를 書架上에 排列할 때, 앞에 있게 하고 뒤에 있게 하는 嚴格한 基準이 없다.

이 以外에 이 表에서는 特殊著者에 對하여 列 끝에 適當한 記號로서 區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次號繼續)

(13面에서 繼續)

別 單元別로 完成해서 兒童과 教師가 現在 利用하고 있다. 人的 調査能力 不足으로 우선 國語科만 完成했으나 앞으로 계속 全教科에 걸쳐 實行할 計劃이나 이 일은 뜻 있는 司書同志들이 協力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結果를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國民學校에 맞는 主題名標目表作成의 基本資料가 될 것으로 믿는다.